

# 볼거리와 먹거리가 공존하는 동심의 세계

일본의 어린이·여성 전문서점 '크레용 하우스'

김은지

쇼와여대·일문학 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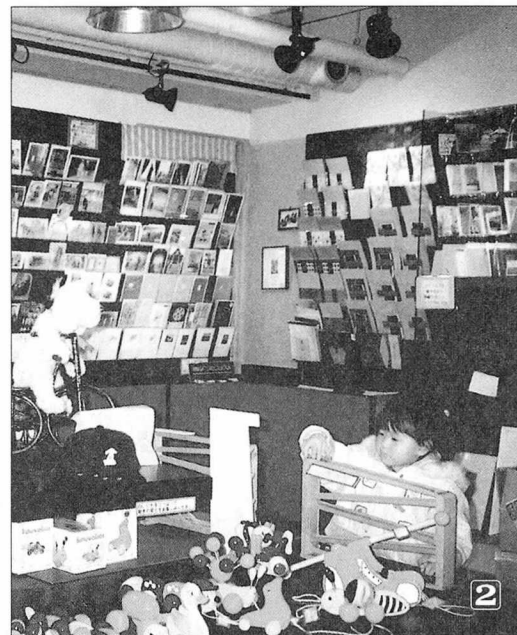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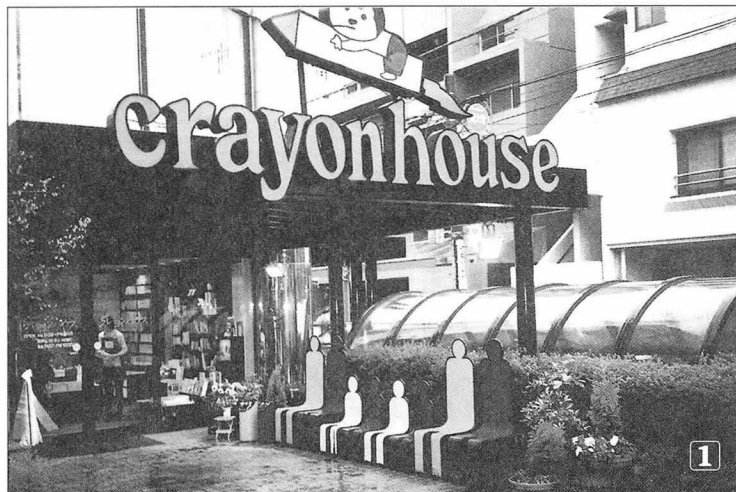
멋·세련·패션. 이런 말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이 바로 아오야마다. '크레용하우스'는 60여개의 유명 브랜드가 총집합한 이 아오야마에서도 가장 유명한 패션빌딩인 하나에모리빌딩 뒷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조용한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함께 고상한 멋과 세련미를 풍기는 일본 최대의 패션가다. 은행나무가 물드는 가을날이면 널찍하게 늘어선 가로수를 따라 여유롭게 산책하는 연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한 폭의 그림이다.

근처에 각국의 대사관이 있는 탓인지 자전거를 타고 상쾌하게 바람을 가로질러 나가는 외국인도 눈에 많이 띄며, 이국적인 느낌을 더해주는 노천카페가 많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네즈미술관, 오타기 넘미술관, 아오야마극장, 아오야마원형극장 등이 있어 볼거리도 풍부한 예술의 거리이다. 특히 크레용하우스가 위치한 '오모테산도'는 최첨단 유행을 만들어내는 젊은이의 거리인 하라주쿠·시부야와도 인접해 있다.

## 패션가에 자리한 최대 아동서점

크레용하우스는 1976년 12월,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자그마한 그림책 전문점으로 출발했으나, 22년이 지난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일본 최대의 아동·여성서 전문서점으로 성장했다. 간사이 지방 독자를 위한 오사카점도 3만권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다. 서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법한 패션가에 자리를 잡은 것이 오히려 크레용하우스가 오늘날 성장하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시내에 쇼핑을 나왔던 사람들이 가볍게 들렀다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나 명절을 이용하여 도쿄에 올라온 길에 크레용하우스를 찾는 지방의 단골손님도 적지 않다.

여성작가 오치아이 게이코(落合恵子)가 대표라는 점도 빠른 시간내에 독자들의 눈길을 끈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방송국 아나운서를 거쳐, 1971년 에세이 《한 스프링의 행복》으로 유명작가의 대열에 들어선 오치아이 게이코는 여성이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여러가지 문제를 테마로 시·소설·에세이를 발표했다. 글을 써나가는 동안 여성과 어린이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취지하에 크레용하우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크레용하우스를 찾는 독자층은 주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 사서 등 비교적 젊은 여성이 많다. 최근에는 어린이와 함께 온 남성도 늘어나고 있다. 크레용하우스는 더이상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공존하며, 어린이와 성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1 고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일본 최대의 패션가에 자리한 '크레용하우스'. 2 그림책과 아동서 매장으로 꾸며진 1층.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도록 작은 의자가 놓여 있다. 3 '볼로냐 국제그림책원화전' 입상자의 작품도 전시돼 있다.

한다.

1층은 그림책과 아동서 매장으로 일서 5만권, 외국서적 1만권이 연령별·출판사별·작가별·테마별로 분류되어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곳곳에 작은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1층 입구에는 만화를 감상할 수 있는 비디오도 설치되어 있다. 어린이들이 용기충기 모여 앉아 만화세계에 빠져 있는 모습은 유치원의 한 교실을 연상케 한다. 1층 매장에서는 사인회 및 '볼로냐 국제그림책 원화전' 입상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2층 연결통로의 서평코너에는 그림책·아동서·여성서에 관한 신문 기사를 게시하고 있다. 그림책과 아동서의 신간소개와 정보를 담은 <크레용하우스 통신>도 매달

발행하고 있다.

2층의 '쿠용(동물 모양으로 된 크레용하우스의 오리지날 마스크트) 마켓'에서는 악기·블럭·퍼즐을 비롯한 완구와 문구, 카드류를 판매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밀랍으로 만든 크레용과 점토다. 꿀벌이 집을 만들 때 몸에서 나오는 순수한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환경에 무해하며 어린이들에게도 아주 안전하다. 그리고 CD를 이용하여 영어·음악·한자·숫자·게임·그림·공작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 엄마와 아기를 위한 섬세한 손길

3층에는 2만권의 장서량을 자랑하는 여성 관련도서 '미즈 크레용하우스'가 있다. 여성

학·여성과 일·가족·여성의 몸·여성의 마음·의료·성폭력·육아·교육 등 코너별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해외의 여성작가들'이라는 코너도 있어서 외국 여성작가의 원서와 번역서가 다수 있다. 그밖에 예술·전쟁·환경문제·정신세계에 관한 책도 취급하고 있다. 3층 매장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천연 기초 화장품, 자연 비누를 비롯하여 무농약 유기재배면으로 만든 여성의류와 아기옷도 판매하고 있다. 한쪽 구석에는 주유용 아기 침대도 놓여 있어 엄마와 아기를 위한 섬세한 손길이 느껴진다. 《우먼스 아이(WOMAN'S EYE)》는 미즈 크레용하우스의 월간지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여성작가의 책, 여성관련 서적의 소개와 해외여성의 출판정보를 담고 있다.

책과

오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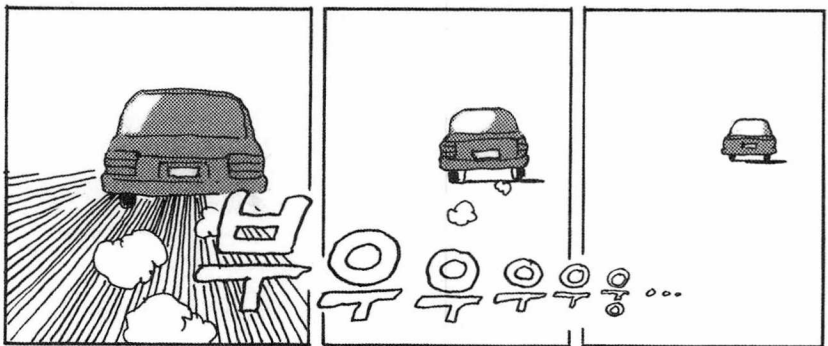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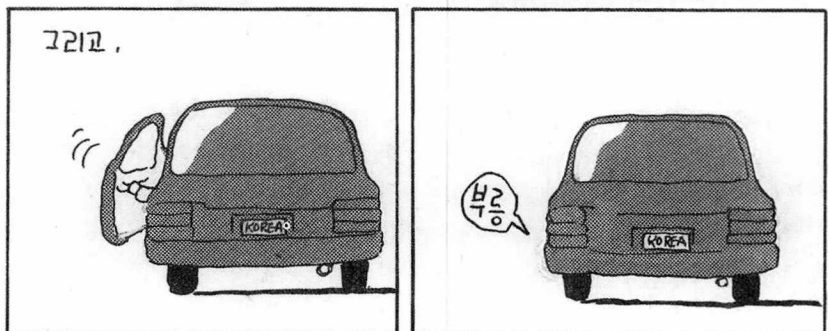
금융부분이 무너진다는 건,



제조부분이 무너진다는 건,



그리고,



2만권의 여성관련서가 테마별로 분류돼 있는 3층 매장. 무농약 유기재배면으로 만든 여성리뷰·아기웃도 판매한다.

지하에는 자연식 음식점 'HOME'과 '광장', 무농약 유기야채와 과일, 무침가 가공식품을 파는 '야채시장'이 있다. 평상시 레스토랑인 '광장'은 매달 한번씩 개최되는 '어린이책 학교'와 매주 일요일 오전에 이루어지는 '그림책 일요학교' 등 이벤트가 있을 때 공연장과 교실로 변모한다.

91년 5월부터 시작된 연속강좌 '어린이책 학교'는 '어린이'를 키워드로 아동서 및 어린이를 둘러싼 어른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다. 강연자는 아동문학가·화가·소아과의원·작곡가·동화작가·자연사 진작가·시인 등 매우 다양하다. 18년째 맞는 '그림책 일요학교'는 회원제나 예약제가 아니므로 그림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테마를 매주 준비하여 등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함께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회다. 어른이 되면서 그림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데 일요일 한때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오랫동안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

#### 북클럽 서비스까지

신인작가 발굴을 위한 '크레용하우스 그림책 대상'은 올해로 20회를 맞이했으며 해외에서 응모하는 작품도 매년 한두점씩 있다고 한다. 또한, 육아잡지 《월간 쿠용》 및 신문기사를 모은 정보지 《월간 어린이론》도 발행하고 있다. 《월간 어린이론》은 18개의

신문사·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교육·가정·사회·환경·몸과 마음·성인·테이더·아동서 등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편집되어 있다.

그밖에도 크레용하우스에서 자체 엄선한 그림책을 매달 우편으로 보내주는 '북클럽'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샛포로에서 장기출장은 한 아버지가 "매달 한권씩 딸에게 그림책을 보내면 카세트테이프에 감상을 담아서 보내오는데, 그림책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북클럽을 시작하게 된 동기라고 한다. 크레용하우스의 아동서 사업부장 다카야 미치코(高谷みち子)씨에 의하면, 전국 각지에서 감사와 격려의 편지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크레용하우스가 단순히 서점의 구실뿐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와 공간활용으로 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까.

크레용하우스를 찾는 독자층은 주부,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사, 사서 등 비교적 젊은 여성이 많은데 최근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남성도 늘어나고 있다. 크레용하우스는 이제 더이상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셈이다. 이처럼 크레용하우스는 볼거리와 먹거리가 공존하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곳이다. ◆